



시론 02

피벗(Pivot)의 시대, 2025

답사기 03

F1963에 다녀와서

전남 지역 뉴스 04-05

전라남도건축사회, '꿈이 있는 집'에 후원용품 전달식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장성군 무궁화공원, 전남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전북 지역 뉴스 06-07

전북 상공회의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 체결
2024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미음 건기대회 개최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절차 돌입

광주 지역 뉴스 08-09

'2024 광주광역시 건축 대학생 축구대회' 개최... 우승은 광주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20주년 기념 해외전지훈련' 실시
조선이공대 건축과,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스케치 10

유성환 건축사 / 예손 건축사사무소(전북)

설계경기 11

광주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독자광장 12

한 편의 시 _ 만추의 저녁

한 장의 사진 _ 로널드 레이건 빌딩 & 국제무역센터

책 소개 _ 세상엔 알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도 많아



건축문화 사랑

광주·전남·전북 건축사회 신문
News 2024.12.181호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전라남도건축사회 창간일: 2009년 11월 10일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http://gjkira.kira.or.kr>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



건축문화사랑을 스마트폰에서도 구독하실 수 있습니다.
오른쪽 QR코드로 접속하신 후, 상단 '건축문화사랑'을
클릭하시고 홈페이지에서 월별 PDF파일을 다운받으시면
구독 가능합니다.

건축문화사랑 신문 '온라인 전환' 사전공지

- 정보 소비 습관이 디지털로 이동, 편의성 증진, 비용절감 등
신문발간의 지속 가능성을 강화하기 위해 건축문화사랑
신문이 '온라인 전환' 합니다.
- 온라인 전환 개시일 : 2025년 01월호
- 변경 사항 : 1) 종이신문 제작 및 발송을 중단하고, 회원
이메일로 뉴스레터 및 PDF 제공
2) '건축문화사랑' 블로그 개설
(<https://blog.naver.com/enara10>)

피벗(Pivot)의 시대, 2025



신재욱 논설위원

광주광역시 공간혁신과장
newurban@hanmail.net

[경력]

- 광주광역시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광주광역시 북구청
- 지역 및 도시계획학 박사
- 건축사
- 도시계획기술사

[참여 도시계획 프로젝트]

- 광주 도시기본계획
- 영산강 Y프로젝트
- 광주시 도시 재개발 프로젝트
- 행정중심복합도시 마스터플랜
- 광주 군공항 종전부지 계획 등

[저서]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22)
- 포스트코로나 시대의 도시계획과 부동산(2022)
- 도시계획+건축인허가 실무서(2008)
- 건축인허가 실무노트(2004) 등

2025년은 도시와 건축, 그리고 우리 사회에 있어 전환(Pivot)의 해로 자리 잡을 것이다. 전 세계적으로 초고령화, 인구 감소, 기후 변화라는 세 가지 거대한 물결이 우리 앞에 밀려오고 있다. 성장과 확장을 기반으로 한 현재의 사회 구조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에는 한계에 도달했다. 도시 성장의 동력이었던 인구 증가는 더 이상 기대할 수 없는 상황에 도달했다. 인구 감소는 대규모 주거지와 인프라 확충의 필요성을 약화시키며, 급격히 늘어나는 고령화는 도시 공간을 재구성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있다. 단순히 기존 인프라를 유지하는 것만으로는 이러한 도전에 대응할 수 없음을 우리는 점점 더 분명히 깨닫고 있다.

기후 위기는 이러한 도전에 또 다른 복잡성을 더하고 있다. 폭염, 홍수, 가뭄과 같은 극단적 기후 현상은 이제 흔한 일이 되었으며, 건축은 주요 탄소 배출원으로 지목되고 있다. 이에 따라 녹색 건축 규제가 강화되고 있으며, 디지털 기술 또한 도시를 단순한 거주지가 아닌 데이터와 기술로 연결된 생태계로 변화시키고 있다. 스마트 기술을 효과적으로 활용하지 못하는 도시는 경쟁력을 잃고 미래에서 도태될 가능성이 크다.

일상의 변화와 새로운 도전

이러한 변화는 이미 일상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디지털 기술의 발전과 전자상거래의 일상화는 소비 패턴을 변화시키며, 기존 상가와 상권에 위기를 불러왔다. 서울 신촌과 이대 상권은 한때 번영했지만, 현재는 침체의 그림자가 드리워졌다. 소규모 상가를 중심으로 임대료 하락세가 가속화되고 있으며, 공실률은 여전히 높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건축 설계 시장에도 심각한 부담을 안기고 있다.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소비자들은 단순한 쇼핑에서 벗어나 여행, 레저, 호텔과 같은 체험형 소비에 더욱 집중하며 건축의 트렌드에 변화를 주고 있다. 그러나 국내외 주요 경제 보고서들은 한국 경제와 부동산 시장 전망이 여전히 밝지 않음을 보여준다. 소비 트렌드의 변화는 단순히 경제 구조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도시와 건축에도 변화를 요구하고 있다.

피벗의 시대를 위한 세 가지 과제

2025년은 도시와 건축이 새로운 방향으로 전환해야 할 피벗(Pivot)의 시대가 될 것이다. 이 전환의 시대를 이끄는 첫 번째 열쇠는 '탄소중립'이다. 도시와 건축의 전 과정에서 탄소 배출을 최소화하고 상쇄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순환경제 기반의 건축 자재를 활용하고, 스마트 에너지 관리 시스템을 도입하여 에너지 효율성을 극대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나아가, 회복 탄력성

(Resilience)을 고려한 설계, 홍수나 폭염과 같은 자연재해에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적응형 디자인은 지속 가능성이 건축의 핵심 요소가 될 것이다.

두 번째로 중요한 과제는 '스마트 시티'의 구현이다. 스마트 기술은 건축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지속 가능성을 높이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광주시는 2022년부터 스마트 지역 거점 조성 사업을 진행 중에 있다. 비록 실증단계라 일반인에게 스마트 도시를 체감하기 어렵지만, 실무 관점에서는 데이터가 수집되면 사회 전반에 미칠 위력이 클 것으로 판단된다. 한 예로, 동구의 문화센터에 설치된 에너지 절약 설비(City-EMS)는 건축물의 에너지 데이터를 수집·분석 중이다. 이러한 데이터 기반의 건축물과 도시 관리의 에너지 소비를 실시간으로 분석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세 번째로, '융합형 도시공간 제도'가 2024년에 마련된 점이다. 세계 대도시의 추세는 주거지, 업무 및 여가를 동시에 처리할 수 있는 공간계획 프로젝트가 이루어지고 있다. 런던 킹스크로스(King's Cross) 재개발은 철도역 주변 노후 지역을 주거, 상업, 문화, 공공 공간이 융합된 혁신지구로 변모하였고, 뉴욕 허드슨 야드(Hudson Yards)는 복합 용도로 개발된 도시 속 도시로, 창의적 문화 콘텐츠와 글로벌 기업 유치에 성공하였다. 국내에서는 광주시의 전남·일신방직 개발이 주목받고 있다. 단순한 공장지역 재개발을 넘어, 변화하는 인구 구조와 라이프스타일에 적합하도록 창의력을 바탕으로 도시설계를 한 점이다.

현재 도시계획 체계는 20세기 제조업 시대에 마련된 것으로, 주거환경 보호를 위해 주거지역을 상업지역과 공장지역에서 분리하였다. 그러나 지식노동 중심의 4차 산업 시대는 주거·문화·여가 등이 어우러져 정보 교환과 인재 유입에 유리한 직주근접형 산업공간을 선호하고 있다. 건축과 도시도 이러한 새로운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시점이다. 세계의 유명 도시들은 이미 도시 공간을 고밀·복합 개발하여 이동 시간을 줄이고, 한정된 공간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는 압축도시(Compact City)로 변화하고 있다.

전환점을 맞이한 도시와 건축

이러한 변화들은 2025년이라는 전환점을 맞아 가속화될 전망이다. 피벗시대에는 창의적인 건축계획과 스마트 기술의 융합을 통해 탄소중립, 디지털 전환, 융합형 공간 활성화와 같은 혁신적 접근법을 통해 인구증가와 고성장 시대에서 느끼지 못한 감성·체험의 공간계획으로 변화되는 변곡점이라 보여진다. 2025년은 전환의 시대이자, 새로운 가능성을 열어가는 기획의 시대가 될 것이다.

건축문화사랑

2009년 11월 10일 창간

발행처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발행인 강필서, 이경일, 이성열
편집인 허만수
부편집인 장기섭, 임현정, 육광돈
자문위원 서재형, 정명환, 강동영, 박종호, 박주현, 임태형
전담기자 김종문
편집위원 정영진, 김미리, 김종원, 강성구, 최기성, 설혜순, 오선화, 윤미순, 양창근, 최정미
등록번호 광주광역시 라00144
간별 월간
등록일자 2010-01-25
편집및인쇄 레이아웃 T. 070-8277-2589
광고신청 T. 062)521-0026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건축문화사랑 신문

T. 062)521-0025~6 F. 062)528-0026

건축문화사랑 신문 발전기금을 모집합니다!

- 발전기금 : 1만원부터
- 후원방식 : 신탁 131-009-471898 (예금주: 광주건축사회)

건축문화사랑 원고모집

건축문화사랑에 게재할 원고를 다음과 같이 모집합니다.
독자사진/지역소식/동호회소식/책/수상/수필/작품노트/건축작품/독자만평/기타(기행문, 시, 문학작품, 미담, 학위취득, 교수임용 등)
원고마감 : 매달 5일
문의 : 광주건축사회(T. 062-521-0026 / gjkira@empas.com)
1. 건축작품 및 기타를 제외한 모든 원고는 소정의 원고료를 지급
2. 원고에는 작가의 사진과 사무소명, 직책 및 약력을 첨부
3. 원고는 아래 한글, 명조체, 10pt로 작성, 사진은 디지털파일로 제출

F1963에 다녀와서

이충미 건축사 / 진짜노리 건축사사무소 (광주)

광주광역시건축사회 답사동호회에서 선정한 답사지는 부산이었다. KTX가 연결되지 않아서 그런지 심리적인 이유여서 그런지, 부산은 유난히 멀게 느껴지는 곳이다. 이런 기회가 아니면, 굳이 시간을 내서 가기 어려운 곳이다.

한참을 달렸다. 도로 위에서 멈췄다 섰다를 반복하는 것이 부산에 도착했구나. 마침 이어폰에서 최백호의 '부산에 가면'이 흘러나온다. 이 타이밍 무엇?

F1963은 N차 방문이다. 사진첩을 뒤져보니, 최초 2018년도에 방문했었다. 그때는 사람이 많지도 않았고, 외부공간 조성이 조금은 삭막한 느낌이었었는데, 오랜만에 찾은 이곳은, 무럭무럭 자라있는 느낌이다. 콘텐츠도 풍부해졌고, 모든 공간이 꽉 차 있다. 후정의 나무도 풍성해졌고, 수공간도 조성되어 있다. 주말이라서 그런지 사람도 가득하다. 삭막했던 공간에 생기가 돈다.



아기자기하고 예쁘게 조성된 후정



회원제로 운영 중인 예술전문도서관

나의 첫 재생프로젝트는 대구의 제일모직 부지에 조성한 삼성 창조 캠퍼스였다. "제주해군기지" 터키를 진행하면서 건축일에 대한 자괴감이 있었다. 건축을 업으로 하는 사람으로서 개발은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점에서 진지하게 고민하던 시절에, 개발이 아니어도 의미 있는 건축일을 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준 프로젝트였다.

회사를 그만두고 처음으로 잉여로운 시간을 보내던 중, 운명처럼 담양에 오래된 정미소와 해동주조장을 일로 만나게 되었다. 재생 건축의 어려움, 예산은 부족하고, 적은 설계비로 끊임없이 발생하는 현장 상황들로 인해 끝까지 않을 것 같은 설계변경, 왜 다들 기피하는지 온몸으로 느꼈다.

하지만, 매력적이고 보람된 작업이었다. 죽어있던 공간을 새롭게 해석하고, 또 다른 의미가 되어 오랜 시간 그 자리에 존재하게 하는 일, 그리고 다시 사랑받게 하는 일은 너무나도 흥분되는 일이다.

또 다른 재생프로젝트를 준비하고 있던 터라, 이번 답사는 나에게 매우 유효했다. 7년 만에 방문하는데 얼마나 변화했을까, 어떻게 성장했는지 궁금했다. 처음 방문했을 때는 보이지 않았던 것들이 이제야 비로소 보인다. 가장 현실적인 고민으로 단열을 처리하기 위해 어떻게 어떤 조치들을 했는지, 남겨지는 것들과 새로이 구축하는 것들 사이에서 조화로우심을 찾기 위해 건축사와 스텝들이 얼마나 치열하게 고민했는지 느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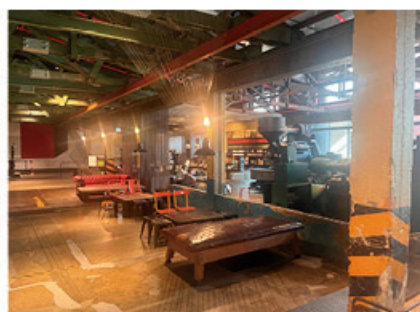
외벽단열성능 확보를 위한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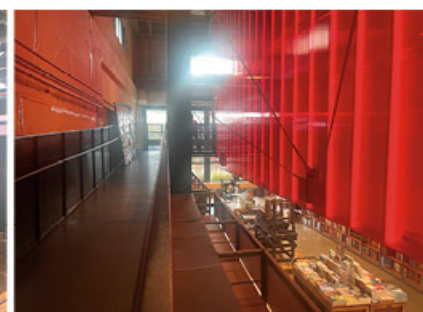
기존 벽체를 활용하는 방법

원재료를 제품으로 만들어내던 "공장"이라는 장소성을 유지하면서도, 공간 이미지와 잘 맞는 커피공장을 유치하고, 철강을 나르던 곳을 지식을 "나르다"라는 의미를 담아 책을 테마로 하는 중고서점과 도서관을 운영하는 등, 스토리텔링에 집착하는 내게 너무나 와닿았다.

곳곳에 공장 부속물들을 오브제처럼 전시하고, 와이어공장이었다는 것을 잊지 않도록 와이어를 인테리어 요소로 쓰기도 하고, 과감하게 구조체로 구현한다.



커피공장 인테리어



레드박스를 집기 위한 구조

전체의 입면을 메탈 매쉬를 이용하여, 제강공장의 정체성을 드러내며 다소 복잡해 보일 수 있는 여러 건물을 단정하게 하나로 정리한다. 본관동과 주차장에서부터 단지 전체의 지붕 위로 연결되는 과감한 연결브릿지계획. 드러내지 않고 은밀하게 구석에서 존재감을 드러내는 달빛정원까지.

괜히 부럽다. 질투난다. 그중에서도 가장 부러웠던 점은, 오랜 시간이 지났는데도, 여전히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고 사랑받고 있는 공간이라는 점이다. 큰 주제에서 벗어나지 않는 상업공간들과 적절히 배치된 문화공간들, 끊임없이 재미있는 콘텐츠를 발굴하는 노력, 모두가 조화롭게 가능한 일이다.

귀찮고 힘들다, 이윤을 남길 수도 없다, 고생만 한다는 이유로 멀리했던 재생프로젝트. 먹고살기 바빠서 일부러 잠재웠던 열정이 마구마구 꿈틀거렸던 시간이었다.

신협 어부바니까 탐탐한 금융설계 든든한 금융의 힘 따뜻한 협동의 힘

'22년 4.5%, '23년 4.6% 배당
비과세 출자금 한도 2천만원

법인건축사사무소 조합원 가입 가능
동일인 한도대출 10억원
세무사항은 상담을 통해 알려드립니다.



광주건축사신협

광주광역시 북구 무등로 255(4층)
Tel. 062-527-8890~1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

강인수 건축사 / 예담 건축사사무소
전남 장흥군 장흥읍 북부로 3 / Tel. 061-863-1988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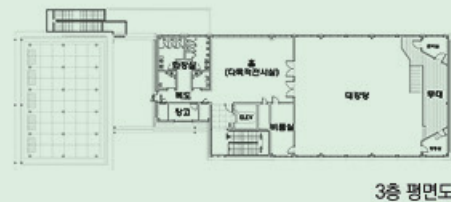


대지위치 : 전라남도 장흥군 장흥읍 건선리 400 / 대지면적 : 2,631㎡ / 건축면적 : 999.89㎡ / 연면적 : 2,520.39㎡(증축 : 651.62㎡)
건폐율 : 38% / 용적률 : 87.35% 규모 : 지상 2층(기존)+3층(증축) / 주용도 : 노유자시설 / 구조 : 철근콘크리트조(기존)+일반철골조(증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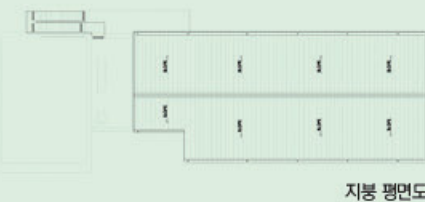
기존 사용하던 장흥군 노인복지관 건물에 대규모 강당의 필요성을 느껴 수평 증축과 수직 증축의 2가지 계획을 고려하다 외부 공간의 효율적인 활용과 기존 동선의 편리성 측면에서 수직 증축으로 결정하였다. 기존 건물의 디자인을 최대한 훼손하지 않고 아울러 수직 증축의 시공성 및 추후 유지관리의 편리성에 주안점을 두고 계획하고자 하였다. 끝으로 노인복지관을 사용하시는 분들의 편리하고 유용한 다목적 공간으로 활용되고 편안하고 좋은 공간으로 오래오래 사용되길 바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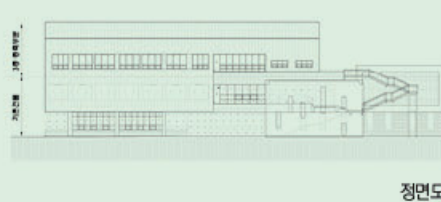
장흥군 노인복지관 증축공사



3층 평면도



지붕 평면도



정면도



측면도

전라남도건축사회, '꿈이 있는 집'에 후원용품 전달식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달



위해 마련했다.

전남건축사회 이경일 회장은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는 분들에게 작게나마 도움을 드리고자 이번 기부를 준비했다"며 "앞으로도 지역사회를 위해 다양한 나눔 활

전라남도건축사회(회장 이경일)가 지난달 4일 신안 압해도에 위치한 장애인복지시설 '꿈이 있는 집'을 방문해 보일러 및 생활용품 등 후원용품 전달식을 가졌다.

이번 기부는 소외되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장애인에게 따뜻한 손길을 전하고 지역사회 온정을 나누기

동을 지속적으로 펼쳐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전남건축사회는 매년 사랑의 집 고쳐주기, 건축설계 재능기부, 건축학과 학생 장학금 기부 등 지역사회 공헌활동을 꾸준히 실천하고 있다.

전남 장흥지역건축사회, 장흥군청에 성금 500만원 기탁

2012년부터 어려운 이웃을 위해 성금 및 재능기부



(사진 = 장흥군청 제공)

전라남도 장흥지역건축사회(강인수 회장)는 지난달 20일 어려운 이웃을 위해 사용해 달라며 성금 500만원을 장흥군에 기탁했다.

장흥지역건축사회는 2012년부터 지난해까지 인재육성장학금, 불우이웃돕기, 수재의연금 등으로 9,000여만원을

기탁했다. 또한 장흥군과 재능 기부 협약을 통해 지금까지 44번째 저소득층 희망 가꾸기 주택 신축을 위한 설계와 인허가 비용을 전액 지원하고 있다.

전라남도 장흥지역건축사회 강인수 회장은 “추운 겨울을 앞두고 십시일반 정성을 모아 장흥건축사회의 온기를 전달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돼 행복하다”며 “앞으로도 건축사회 활성화는 물론 이웃들에게 관심과 사랑을 나눠주는 일에 앞장서겠다”고 말했다.

김성 군수는 “나눔에 동참해 주신 장흥지역건축사회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 도움의 손길이 필요한 이웃과 복지시설 및 단체에게 소중히 전달하겠다”고 전했다.

장성군 무궁화공원, 전남 친환경 디자인 공모전 최우수상 수상

친환경·조화성·창의성 등의 항목 높은 평가받아...

장성군 무궁화공원(장성읍 영천리 985)이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에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전라남도 친환경디자인 공모전은 도내 친환경공간 및 건축물을 대상으로 자연, 문화, 사람이 조화를 이루는 창의적 친환경 공공디자인 발굴을 위해 매년 추진되고 있다.

이번 공모에서 장성군은 장성공원 일원 ‘장성무궁화공원’을 출품해 친환경·조화성·창의성 등의 항목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9,500㎡ 부지에 46개 품종 1만 2,000여 주 무궁화가 식재되어 있는 장성무궁화공원은 현존하는 거의 모든 종류의 무궁화를 만날 수 있는 무궁화 명소이며 경관 폭포, 암석정원, 유아숲체험원 등이 있다. 올해 말까지 공원 중심부에 설치하는 무궁화전망대도 관심을 모으고 있다. 공원 위치가 장성읍 시가지 중에서도 높은 지대여서 장성의 아름다움을 오롯이 만끽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김한중 장성군수는 “군민과 방문객의 휴식공간이자 호국보훈의 마음을 되새기는 뜻깊은 장소로 변함 없이 사랑받을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가꿔 가겠다”고 말했다.

전라남도 영광군, ‘2024 하반기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 개최

지난달 14일 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전남 영광군(군수 장세일)은 지난달 14일 군청 본관 2층 회의실에서 영광군과 지역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 건축 행정 협력 강화를 위한 양질의 건축 행정 서비스를 군민들에게 제공하고자 ‘2024년 하반기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관계 공무원 및 건축 인허가 관계자 12명이 참석한 가운데 건축법 개정 사항 안내, 건축 감리 업무 수행 철저, 인허가 관련 행정 절차 불편 사항 및 개선 방안 등에 대해 다양한 의견을 나눴다. 특히 영광군과 지역 건축 인허가 관계자 간 협조 사항과 건축 행정 발전을 위한 제안 사항 등을 서로 공유하고 상호 유기적인 협력을 바탕으로 선진 건축 행정 구현에 뜻을 모았다.

영광군 관계자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일선에서 애쓰고 있는 건축 분야 관계자들의 생생한 현장의 목소리를 청취했다”며 “향후에도 간담회를 정기적으로 개최해 건실한 건축 행정을 위한 소통의 자리를 만들겠다”고 말했다.

전남 순천시, ‘2024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작 선정

주거, 비주거, 공공 부문 각각 우수작 1개



(사진 = 주거부문 우수작 ‘유유재’ / 순천시 제공)

전라남도 순천시(시장 노관규)는 지난 25일, 도시 경관 향상과 건축문화 발전에 기여한 우수 건축물을 선정해 ‘2024년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 수상작을 선정했다.

공모선정은 2020년부터 2024년 10월 작품접수일까지 사용승인된 순천시 소재 건축물 중 공모를 통해 주거, 비주

거, 공공 부문에서 각각 우수작 1개소를 선정했다.

주거 부문 우수작은 ‘유유재’로, 주변 맥락과의 조화 및 건축물 구성의 우수성을 인정받았다. 비주거 부문 우수작 ‘카페오곡’은 수평선을 강조하면서도 직선과 곡선을 잘 조율하여 주변경관과 유기적인 조화를 이룬 점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 부문 우수작은 ‘어울림센터’로 우수지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고 완성도 높은 평면 구성이 특징이다.

시 관계자는 “순천시 아름다운 건축상”은 우리시 건축정책을 바탕으로 건축사와 건축주, 시공자의 노력으로 이루어낸 결과물”이라며 “이번 수상작들은 순천시 건축문화의 새로운 기준을 제시해 시민들에게 아름답고 조화로운 도시환경을 제공

할 것”이라고 전했다.

시는 2003년부터 매년 아름다운 건축상을 시상해왔으며, 경관법이 본격 시행되기 전인 2007년부터 기초자치단체로서는 최초로 건축디자인 가이드라인을 담은 건축정책 기본계획을 수립·시행하는 등 도시경관 및 건축문화 발전을 선도적으로 이끌어왔다.

‘2024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 입상작 선정

민간 부문 3점과 올해부터 신설된 공공 부문 2점



(좌 = 순천 신대도서관 / 우 = 신안 스미집)

전남도는 ‘2024년 전라남도 우수건축물 공모’를 통해 민간 부문 3점과 공공 부문 2점의 입상작을 선정했다.

2022년부터 시작된 ‘전남도 우수건축물 선정’은 지역의 건축문화 발전과 도시의 품격 향상에 기여한 우수건축물을 발굴하기 위해 추진됐다. 올해부터는 공공건축에 대한 도민의 관심도를 높이기 위해 선정 대상을 공공 부문까지 확대했다.

민간 부문 최우수상에는 TCA 건축사사무소(조웅희 건축사)가 설계한 ‘신안 스미집’이다. 스미집은 리모델링 작품으로 과거와 현재, 미래가 만나는 공간으로 기존 오래된 건축물의 물성과 공간 구조를 유지, 설계자의 의도를 드러낸 디테일 등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공공 부문 최우수상에는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양병범 건축사)이 설계한 ‘순천 신대도서관’으로 도서관 기능뿐만 아니라 문화공간 역할을 하도록 설계자와 주민, 전문 사서가 협업해 만들었다는 점이 높은 평가를 받았다. 이외에도 민간 부문 우수상에 나주 경계익집, 입선에 목포 알프스빌딩, 공공부문 우수상에 해남군청이 선정됐다.

조병섭 전남도 건축개발과장은 “아름다운 건축문화의 확산은 도시미관 향상과 함께 도민 삶의 질을 높이고 풍요로운 삶의 기반을 조성하는 일”이라며 “이번 수상작을 통해 지역 건축의 발전을 촉진하고 다양한 건축주와 설계자가 새로운 창의적 공간을 만들도록 지원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전남 회원동정

•입회

- 윤도영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아틀리에 결 / 전남 순천시 비봉2길 3-18, 4층

•전입

- 김용남 건축사 / 용 건축사사무소 / 전남 장성군 장성읍 영천로 179. 2층

•변경(소재지)

- 이주경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샘터 / 전남 여수시 도원로 265-1, 3층

- 서계원 건축사 / 우리 건축사사무소 / 전남 순천시 왕궁 1길 10

•결혼

- 최재철 건축사 / 한일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4년 12월 14일(토)

- 국원식 건축사 / 한신 건축사사무소 / 자녀결혼 - 2025년 1월 4일(토)

•부고

- 박용목 건축사 / (유)다산 건축사사무소 / 빙모상 - 2024년 12월 2일(월)

- 오조영 건축사 / 서영 건축사사무소 / 빙부상 - 2024년 12월 2일(월)



고객을 기쁘게 세상을 이롭게
반석기조이엔씨(주)

GeoCon (방재신기술) | 평가기초공법
침하지반보강/복원 | 로타리파일(헬리컬)
EcoSM 지반개량 | 강관압입파일
마이크로파일

New, Different, Better

호남지사장 / 이사 김 유 성

010. 5007. 8437 | 3rsinhwa@hanmail.net

전화 070-4482-0257 팩스 062-975-0140

주소 광주광역시 북구 첨단과기로208번길 43-22,

와이어스파크 A동 1114호(오룡동)

INNOBIZ기업 | ISO 9001인증

본사 경기도 남양주시 진건읍 고재로 141-16

전화 031-577-1673 팩스 031-577-1674

www.bs-base.co.k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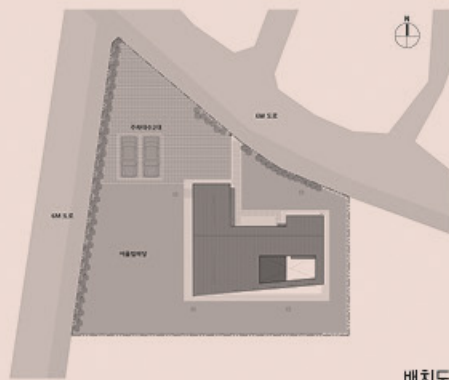
시도하우스

권혁성 건축사 / 스퀘어랩 건축사사무소
전북 전주시 덕진구 만성로 74-1, 5층 / Tel. 070-4007-9234

대지위치: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3가 / 대지면적: 700㎡ / 건축면적: 121.62㎡ / 연면적: 183.58㎡ / 건폐율: 17.3743%
용적률: 26.2257% / 규모: 지상 2층 / 주용도: 단독주택 / 구조: 목구조 / 주요마감: 스타코, 레드롱브리타일, 알루미늄징크, 페데스탈 건식타일공법



아이들의 이름에서 첫글자를 따서 지은 평범한 4인 가족을 위한 단독주택이다.
건축을 전공한 엄마가 꿈꾸던 집이고, 주말부부였던 아빠와 매일 함께할 수 있게 된 집이다.
아이들이 층간소음 걱정 없이 마음껏 소리치며 뛰어놀 수 있고 자연의 소리에 귀 기울이며 계절의 변화를 만끽할 수 있는 가족과 자연이 함께 성장하고 변화하는 행복이 있는 집이 되기를 소망하며 지었다.



배치도



1층 평면도



2층 평면도

전북 상공회의소·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 업무협약 체결

건축·회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증진 및 자문 예정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을 통해 보다 안정적이고 원활한 기업환경 조성을 위해 체결됐다.

전주상공회의소는 지난 20일 전주상공회의소 중회의실에서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 전북지방공인회계사회와 업무협약을 했다. 이번 협약은 전주상공회의소 회원기업에서 어려워하는 건축·회계에 대한 기업의 이해증진 및 자문 등

협약 주요 내용은 도내 기업의 건축 관련 법령과 정보 자문을 통한 건축에 대한 이해증진과 쾌적한 건축환경 개선, 회계자문을 통한 경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증진 등이며 어려운 규제환경 속에 기업이 안정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회원기업들의 기업경쟁력 향상을 통해 전북경제 전체의 기반을 튼튼히 다지는 것을 목적으로 함께 노력하기로 했다.

전주상의 관계자는 "이번 협약을 계기로 각 기관이 더욱 긴밀히 협력하고 상생해 지역 사회와 경제 발전에 도움이 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 나갈 것을 진심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2024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한마음 걷기대회 개최

지난달 22일, 전북 순창 용결산 하늘길 코스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는 지난달 22일 전북 순창 용결산에서 회원 및 가족 등 110명이 참가한 가운데 '2024 전북 건축사회 한마음 걷기 대회'를 개최했다.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이번 대회는 전주지역건축사회가 주관했으며, 참가자들은 용결산 산림휴양관을 따라 하늘길 코스를 걷고 점심을 먹으며 상호간 소통과 역량을 강화하는 시간을 가졌다.

이성열 전북특별자치도 건축사회장은 "회원간 만남의 시간이 부족했지만,

앞으로도 이와 같은 단합행사를 지속적으로 개최해 회원 화합과 도회 발전을 도모하고자 한다"고 말했다.

한편, 전북 건축사 한마음 걷기 대회는 격년으로 전주지역건축사회와 시·지역건축사회 연합으로 주관해 매년 개최해오고 있다.

전북 전주시, 전주종합경기장 철거 절차 돌입

철거 후 부지에는 전시복합산업단지 건립 예정



(사진 = 전주시 제공)

전북 전주시는 지난달 25일 전주시의 중심지였던 전주종합경기장 부지에 전시복합산업 단지가 들어설 예정이어서 전주종합경기장 등에 대한 본격적인 철거 절차에 돌입했다.

총 104억 원이 투입되는 종합

경기장 철거공사는 주경기장과 전주푸드, 수위실 등 총 연면적 3만 6751㎡의 건물 철거 및 폐기물처리를 포함한 공사로, 우선 석면 철거공사에 착수해 지난 6월 공사를 완료했다. 시는 사전절차가 완료되는 대로 부속건축물부터 우선 철거를 시작해 내년 상반기까지 본 경기장 시설을 모두 철거할 예정이다.

철거가 완료되는 대로 본격적인 개발에 착수할 수 있도록 종합경기장 부지개발 관련 각종 행정절차를 추진할 예정이다. 지난달 밀그림이 완성된 전시컨벤션센터에 대해서는 내년 상반기 중으로 설계 및 인허가 관련 사항을 마무리한 뒤 하반기에는 건립에 착수할 방침이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와 협의 거쳐 지난달 전시컨벤션센터 건립 타당성 재조사, 중앙투자심사도 완료할 계획이며 MICE복합단지 건축설계용역도 추진 중이다. 이밖에도 전시컨벤션센터의 필수 지원시설인 숙박 및 판매시설 건립을 추진하는 단지 내 문화·산업시설 조성에도 속도를 낼 계획이다.

전주지역건축사회, '건축사 사무소의 미래' 주제로 포럼 개최

강화된 법령과 불투명한 설계공모 절차 속 현실을 조명...



(사진 = 전북특별자치도건축사회 제공)

전주지역건축사회(회장 박광성)가 지난달 11일 전주시혁신센터에서 '건축사 사무소의 미래: 설계공모 공정성과 법령 강화 속에서 살아남기'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했다. 이번 포럼은 최근 강화된 법령과 불투명한 설계공모 절차 속에서 과중한 책임을

요구받고 있는 건축사들의 현실을 조명하고, 공정한 경쟁 환경과 권익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건축사의 업무 환경 개선이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다는 점에서, 이번 포럼은 건축사의 권익 보호뿐 아니라 지역 사회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방안을 모색하는 의미 있는 자리이다.

건축사들은 최근 법령 강화와 설계공모 과정의 불투명성으로 인해 책임은 커지고 있지만, 이에 걸맞은 보상과 권익 보호는 여전히 미흡하다는 문제를 제기해왔다. 이번 포럼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고, 건축사의 역할과 책임에 상응하는 보상 체계 및 권익 보호 방안을 구체적으로 논의되었다. 특히, 과중한 책임과 의무를 어떻게 합리적으로 조정할 것인지에 대한 실질적인 대응책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다.

포럼 1부에서는 법령 강화로 인해 건축사의 역할이 더욱 복잡해지고 책임이 확대

된 상황에서, 이에 상응하는 보상이 충분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문제가 제기되었다. 법적 책임과 역할이 불명확하게 분배되어 건축사에게 과도한 책임이 집중되는 문제에 대해, 조은석 전주지역건축사회 법제위원장과 이일우 법제위원이 발제자로 나서 구체적인 해결책을 모색했다. 조 위원장은 "법령이 강화될수록 건축사들이 감당해야 하는 책임이 커지고 있어,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지는 2부에서는 설계공모의 공정성 문제와 투명성 확보를 위한 개선 방안이 논의되었다. 건축사들이 공정한 경쟁 환경에서 창의성과 전문성을 충분히 발휘할 수 있도록, 심사위원 선정의 독립성과 심사 절차의 신뢰성을 확보하는 방안이 주요 의제이다. 신태용 전주지역건축사회 회원권익위원장과 정성일 회원권익위원은 독립적인 심사위원 선정을 위한 외부 위탁과 체계적인 모니터링 시스템의 도입을 제안하며, 심사위원의 보수를 현실화해 책임을 강화하고 심사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는 방안을 제시했다.

전주지역건축사회 박광성 회장은 "건축사의 업무환경이 개선되는 것은 단순히 건축사 개인의 권익을 위한 것이 아니라, 더 나아가 시민들의 삶의 질 향상에도 직결됩니다"라며, "건축사들이 공정한 환경에서 제 역할을 다할 수 있어야 도시와 건축물의 안전과 품질이 높아지고, 결과적으로 시민 모두가 그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라고 강조했다.

이번 포럼에서 제시되는 논의와 해결 방안은 전북지역 건축사회의 대안 마련에 중요한 자료로 활용될 예정이며, 건축사의 권익 보호와 공정하고 투명한 경쟁 환경 조성에 실질적인 기여를 할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전북특별자치도, 공공건축물 매뉴얼 발간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7장으로 설명



전북특별자치도

전북특별자치도는 공공건축물 건립 절차를 체계적으로 정리한 매뉴얼을 발간했다. 이번 매뉴얼은 건축 기획부터 유지관리까지 전 과정을 7장으로 나눠 상세히 설명하고 있어 실무자는 물론 일반 도민도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매뉴얼은 건립 업무 절차, 건축기획, 설계공모 준비 및 운영, 유지관리 등 각 단계별 주요 절차와 행정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건축기획 시 고려사항, 공사비 책정 가이드라인, 도 소유 청사 하자관리 업무지침 등 실무에 필요한 정보를 부록으로 제공하여 활용도를 높였다.

전북자치도는 이번 매뉴얼 발간을 통해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의 투명성을 높이고, 담당자 인사이동에 따른 업무 공백을 최소화할 구상이다. 또, 도민들이 공공건축물 건립 과정에 쉽게 참여하고 이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행정 신뢰도를 높여 간다는 방침이다.

이 외에도 전북자치도는 지난 7월 주택건축과 내에 공공건축팀을 신설하여 전문성을 강화하고, 도립국악원, 세계서예비엔날레관, 시청자미디어센터 등 대규모 공공건축사업을 추진하며 지역 문화 및 공공서비스 인프라 확대에 힘쓰고 있다.

김광수 도 건설교통국장은 "이번 매뉴얼은 공공건축사업의 복잡한 절차를 누구나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체계화한 자료"라며 "향후 매뉴얼을 지속적으로 보완해 실효성을 강화하고, 도민들에게 더 나은 공공건축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전북 회원동정

• 입회

- 윤선영 건축사 / 해동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덕진구 두간로 19, 3층
- 김명호 건축사 / CAM 건축사사무소 / 전북 익산시 신천1길 23-4

• 변경(소재지)

- 김영민 건축사 / 동하 건축사사무소 / 전북 고창군 고창읍 교룡길 22, 2층
- 조영철 건축사 / (유)모양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중산5길 17, 2층
- 권세란 건축사 / 꿈꾸는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정읍시 충정로 253-15
- 이영철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세원건축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하계마5길 39-5, 101호
- 유철갑 건축사 / A+ 건축사사무소 / 전북 전주시 완산구 하계마5길 39-5, 102호

• 결혼

- 백우현 건축사 / 건축사사무소 백연 / 딸 결혼 - 2024년 12월 1일(일)

• 부고

- 박세진 건축사 / 세진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2024년 11월 10일(일)

소소당

허만수 건축사
사계절프로젝트 건축사사무소
광주 북구 일곡로41번길 35, 1층
Tel. 062-573-3001

대지위치 : 전북특별자치도 전주시 완산구 영선로 29-8 / 대지면적 : 464.60㎡ / 건축면적 : 178.28㎡
연면적 : 198.16㎡ / 규모 : 지상 2층 / 주용도 : 단독주택 / 구조 : 철근콘크리트 / 주요 마감 : 벽돌타일, 스타코



전주에 사는 건축주는 늦은 시간임에도 개의치 않고 우리 사무실이 있는 광주까지 내려와 첫 미팅이 이루어졌다. 건축주는 대지 뒤편의 산이 좋아 이 땅을 선택하였고, 올해 중학교에 입학하는 아들을 위해 집을 짓기로 결심했다.

중학생이 되는 자녀를 위한 공간을 이야기 할 때, 책을 읽기 좋은 공간이었으면 한다고 했다. 대부분 학업에 집중 할 수 있는 공간을 요구하는 보통의 경우와 달라서 재미있는 설계가 되겠다. 싶어 건축주만큼 우리도 설레이기 시작했다. 더불어 언제든지 운동할 수 있는 공간과 자녀와 아빠가 마음만 먹으면 텐트를 칠 수 있는 공간도 요구했다.

본 계획은 건축주의 필요에 따른 다양한 공간을 단정한 매스 안에 효율적으로 배치함과 동시에 건축 자체가 갖는 아름다움에 집중하려 노력했다. 과감하게 단일한 입면재료로 마감을 하여 눈을 현혹하지 않으려 애썼다. 꼭 필요한 것만 남기고, 본질에 집중하려 건축주와 함께 계획에 긴 시간을 할애하였다. 건축프로젝트에서 가장 중요한 요소는 '소통'임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프로젝트였다.

‘2024 광주광역시 건축 대학생 축구대회’ 개최... 우승은 광주대

광주·전남·조선·호남대학교 4개 대학,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참여



1시에 호남대학교 인조잔디구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강필서 광주광역시건축사회 회장, 조창근 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장, 이순미 한국건축가협회 광주전남건축가회장, 이철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회장을 비롯해 건축학과 관련 교수, 재학생 등이 참석했다.

(사)대한건축학회 광주·전남지회가 주관하고 대한건축사협회 광주광역시 건축사회와 축구동호회가 후원하는 ‘2024 광주광역시 건축 대학생 축구대회’가 지난달 23일 오후

대회는 광주대, 전남대, 조선대, 호남대와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팀이 참여해 25분 경기, 5개 팀이 풀리그 방식으로 선의의 경쟁을 펼쳤다. 경기 결과는 광주대가 3전 전승으로 우승을 차지했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20주년 기념 해외전지훈련’ 실시

지난 11월 8일~12일까지 라오스에서...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회장 이철)는 창립 20주년을 기념하여 지난 11월 8일부터 12일까지 4박 5일간 해외 전지훈련을 라오스에서 실시했다.

이번 행사는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원 및 라오스건축사회원 5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친선축구교류전과 함께 선

물교환과 만찬을 갖었다. 또한 회원들 상호 간에 여러 가지 액티비티를 즐기며 회원 상호 간의 화합과 체력증진을 하는 시간들로 채웠다.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 이철 회장은 “축구를 통해 건축사 역량을 하나로 결집해 상호 발전하는 방향을 모색하고 더불어 서로 간의 우정을 나누는 소중한 시간이 되었다”고 말했다.

한편 광주건축사축구동호회는 2004년 2월 설립 후 지난 20여년의 기간 동안 전국건축사대회를 5번이나 우승한 명실상부한 전국 최고의 건축사축구팀이다.

조선이공대 건축과,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 개최

지난 11월 27일 조선이공대, 12월 5일 호남대학교...



(좌 = 조선이공대 / 우 = 호남대학교)

조선이공대 건축과와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이 지난 11월 27일, 12월 5일 개최됐다. 먼저 올해 50회째를 맞이하는 조선이공대학교 건축과 졸업작품전은 전일빌딩245 3층 시민갤러리에서 개막식을 개최하고 우수학생에 대한 시상식과 작품전시회를 가졌다. 다음으로는 올해 34회째를 맞이하는 호남대학교 건축학부 졸업작품전은 'Ctrl + S 저장'이라는 주제로 교내 복지관 지하 1층에서 개막식과 시상식을 개최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두 행사에 참석하여 격려와 함께 시상 및 발전기금 전달, 테이프 커팅식을 진행했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2024년 제1차 회원임시총회 개최

연금제도 활성화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의장 강필서)는 지난달 29일 오후 2시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에서 연금제도 활성화 및 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2024년 제1차 회원임시총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시총회에는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강필서 회장을 비롯한 대한건축사협회 정인채 부회장, 역대 회장 등 회원 140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주요 개정 내용으로는 연·기금 납부금액 회원 1인당 납부한도 하향, 장학금·복지수혜금액 조정, 적립된 회원 요청 시 개인연금 일부 지급 시기와 금액 신설 등 회칙 일부 개정(안)을 안건으로 상정하여 회원들의 동의 및 거수와 제청으로 수정 승인되었다. 자세한 내용은 광주건축사회 홈페이지 공지사항 253207번을 참조하면 된다.

광주건축사연금관리회 강필서 회장은 “어려운 시기인 만큼 회원들의 복지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관련 의견수렴을 위한 정책토론회 개최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 하향·준주거지역 내 용적률 상향에 대해 논의



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지난달 14일 오후 2시 광주광역시의회 5층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도시계획조례 개정안 시민 의견 수렴 정책토론회’를 개최했다. 이날 토론회에서는 심

철의 광주시의원, 광주건축단체연합회 유창균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광주광역시 김준영 도시공간국장, 이창울·박홍근 건축사 등이 참석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지역 상권 침체를 해소하기 위해 상업지역 주거복합건물의 ‘비주거 면적 의무 비율을 15% 이상에서 10% 이상으로 낮추는 조례 개정안’과 심철의 광주시의원이 발의한 ‘준주거지역 내 공동주택, 주거복합건물, 오피스텔 용적률을 기존 250%에서 350%

로 상향 조정하는 광주시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안’에 대해 다양한 전문가들과 토론을 통해 의견수렴을 했다.

토론자로 참여한 조진상 동신대 명예교수는 “2030년 광주시 주택보급률이 130%로 예상되는 상황에서 아파트 과잉 공급은 지양해야 한다. 조례 개정으로 인한 실익이 없어 보인다”며 “원도심에 아파트 짓고 싶으면 상업지역을 주거지역으로 바꾸거나 주거지역에 준하는 용적률을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했다.

유창균 목포대 교수도 “상업지역의 주거 비율 확대는 주택보급률과 용도 지역 지정 목적에 비춰 신중해야 한다”며 “주택 공급이 절실한 수도권과 차별성을 가질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에 반해 박홍근 건축사는 “상업지역에 저녁에도 사람을 머물게 할 대안이 필요하다”며 “다른 대도시들과의 경쟁력, 도시 경관, 미래 비전 등을 고려해 비주거 의무 비율을 낮추고 용적률을 상향 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2회 광주광역시남구청장배 바둑대회 개최

지난 12월 7일 문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광주 남구청과 남구체육회가 주최하고 남구바둑협회가 주관, 광주광역시건축사회, 국제건설이 후원하는 ‘제2회 광주광역시 남구청장배 바둑대회’가 지난 7일 오후 2시 문성고등학교 실내체육관에서 개최됐다.

이날 대회에는 광주바둑협회 장계상 회장,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 심상봉 남구바둑협회장 등이 참석했으며, 경기는 남구 관내 재학 중인 초등학교생을 대상으로 저학년부, 중학년부, 고학년부 등 다양한 부문으로 치러졌다.

광주건축사회 강필서 회장은 “이번 대회를 통해 바둑 문화 활성화와 관내 학생 간의 교류의 장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광주광역시건축사회 2025년도 을사년 시무식 개최 안내

- 일시 : 2025. 01. 02일(목) 오후 2시
- 장소 : 광주건축사회관 5층 대회의실
- 내용 : 신년하례식 및 주요 업무보고
- 기타사항 : 2025년도 광주건축사회원 회원명부, 다이어리, 신년 캘린더, 설계의도구현 포스터 지급

광주 회원동정

•입회

- 정재훈 건축사 / 베스트 건축사사무소 / 광주 동구 독립로 226번길 30, 202호
- 한수빈 건축사 / 프롬에이 건축사사무소 / 광주 북구 중가로 114-1
- 한서호 건축사 / 비바 건축사사무소 / 광주 서구 상무대로 989-4, 402호

•부고

- 선광엽 건축사 / (주)이수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 - 11월 17일(일)
- 김종관 건축사 / (유)전일 건축사사무소 / 모친상 - 11월 19일(화)
- 강연심·박규상 건축사 / (주)백두 건축사사무소 / 부친상(장인상) - 12월 1일(일)
- 백민곤 건축사 / (주)락디자인 건축사사무소 / 본인상 - 12월 10일(화)

이광원&조선희 법률사무소

변호사 이 광 원



- 전남 영광 출생
- 광주국제고등학교 졸업
- 고려대학교 법학과 졸업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활동
- 순천시청 건축 발전 심의위원
- 전남개발공사 준법감시 위원
- 대한변협 우수변호사 선정(2022년)

광주건축사회 법률자문위원
변호사 조 선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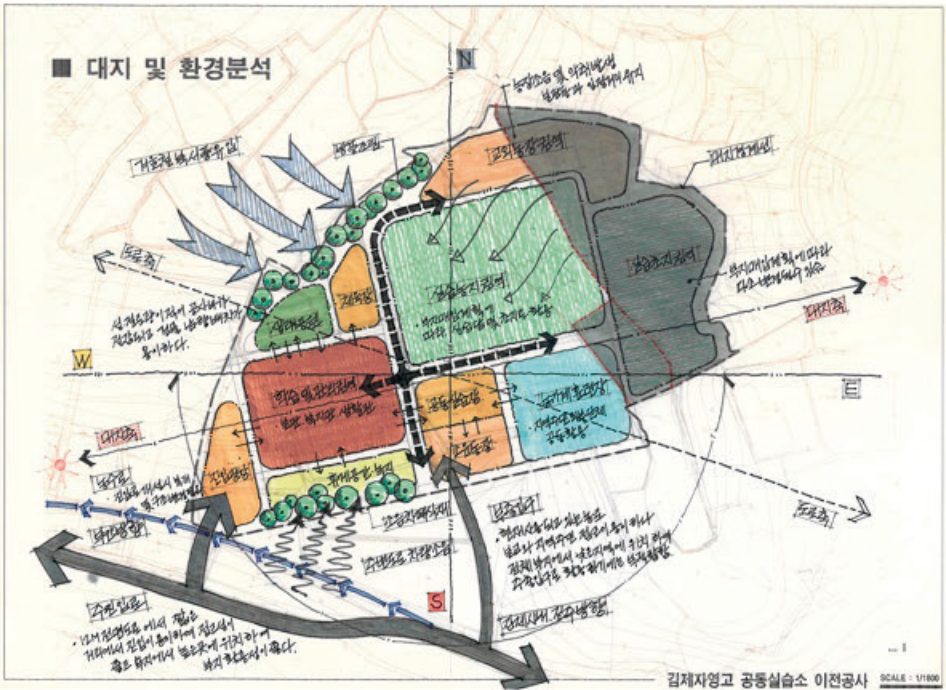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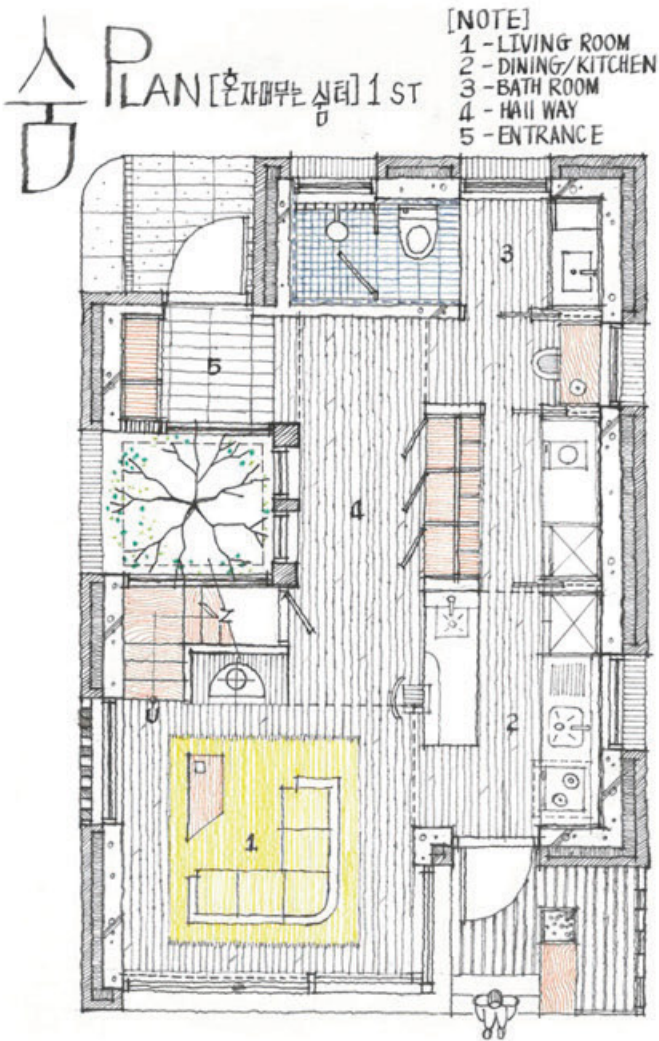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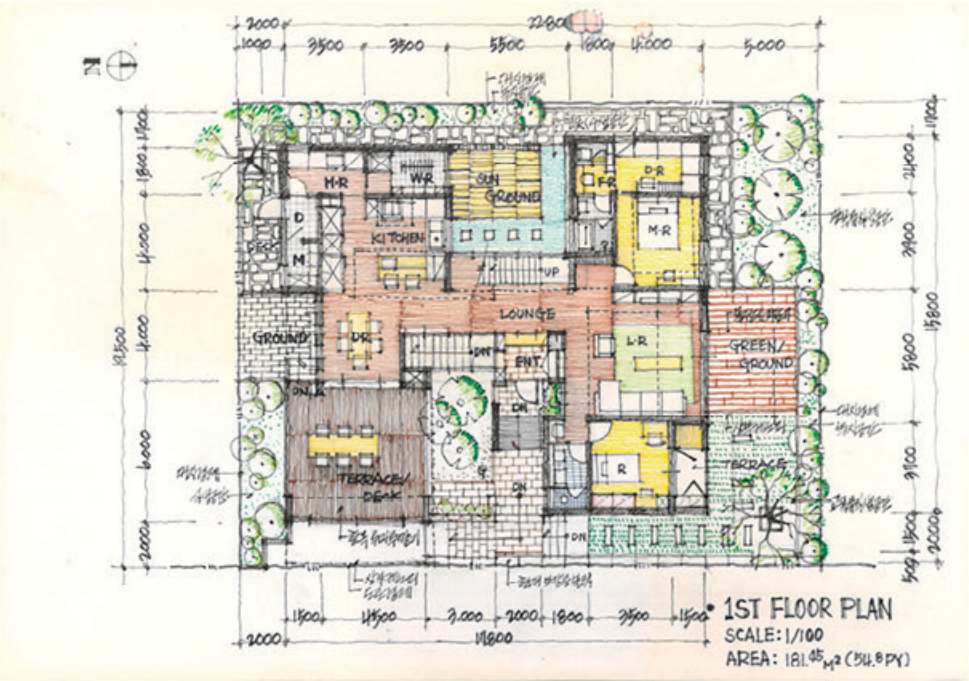
- 전남 강진 출생
- 전남대 법학과 졸업
- 전남대 산업대학원 건축공학과 수료
- 광주광역시 도시계획, 건축 공동위원회
- (현) 광주자치경찰 위원
- (현) 대한변협 대의원

광주광역시 동구 동명로 102-2, 3층 T. 062)234-7417

나만의 건축디자인 “스케치”로 이야기하다



건축디자인 프로세스 과정인 “스케치”
건축 디자인 스케치는 건축사, 시공사, 클라이언트와 디자인 방향 소통이 원활해지면서 업무 효율성 향상, 다양한 배치 방안을 실험해볼 수 있는 등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처럼 그의 노고가 담긴 스케치를 통해 선후배 건축사들에게 영감을 얻길 기대해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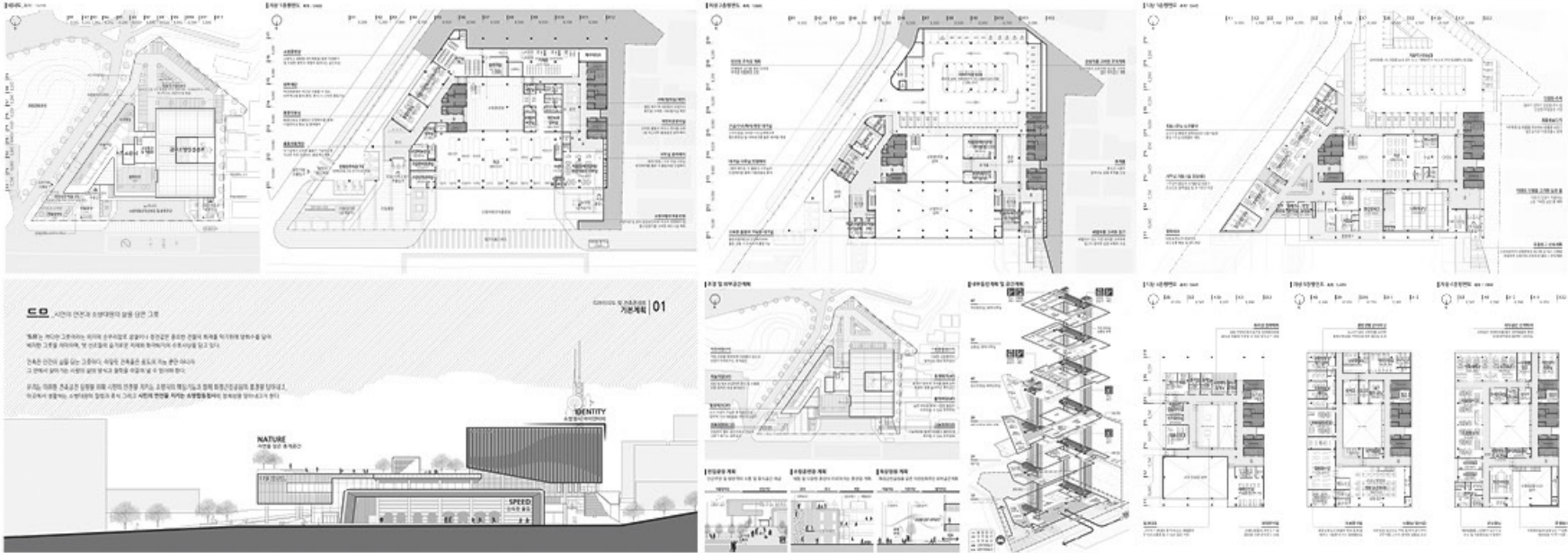
광주소방안전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사업 건축설계 공모

본 사업은 소방안전본부와 소방서의 신속한 지휘체계 구축으로 재난현장 신속대응을 목적으로 함. 재난대응 컨트롤 타워 기능을 강화하고 시민들에게 보다 나은 소방서비스를 제공하고자 추진하는 「광주소방본부 및 서부소방서 합동청사」 건립을 목적으로 최적의 건축물 조성을 위함 - 본부·서부소방서 소방력 상호보완(현장+행정) 운용으로 현장 및 행정시너지 효과 제고하고자 함. 효과적인 재난대응 및 소방정책 수행을 위한 시설 인프라 확충으로 시민들이 안심하고 생활할 수 있는 안전한 소방서비스 구축하고자 함.

심사위원 : 김근성(경상대), 예정우(씨마건축), 최준호(부경대), 강필서(공간동인건축), 강형주(조선대), 김경식(전남대), 김선영(일우건축)

- 대지위치 : 광주광역시 서구 화정동 324-2번지 일원
 - 대지면적 : 8,697㎡
 - 건축면적 : 3,542.74㎡
 - 연 면 적 : 12,500.70㎡
 - 건 폐 율 : 40.74%
- 용 적 륜 : 143.74%
 - 구 조 : 철근콘크리트 라멘조
 - 규 모 : 지상 6층
 - 최고높이 : 27.4m
 - 마 감 : 세라믹판넬, 노출콘크리트, 로이복층유리 등

당선작
양병범 건축사 / (주)건축사사무소 휴먼플랜



한 편의 시 _ 濟堂 추원호 / 건축사사무소 신세대그룹

만추의 저녁

서양도 사라진 가을 저녁
고물고물 산길을 따라
액셀을 밟는다

노을진 하늘과 맞닿은
산허리 능선의 곡선이
깊게 잠든 얼굴의 모습

떨림이는 나뭇잎 사라지고
고요히 침잠하는 대지
떠나가는 가을 아쉬움일까
열린 창밖에 스쳐가는
쓸쓸한 바람 소리만 들린다

밤길 오고 가는 자동차
불빛만 현란한데
아침부터 늦잠 자는 저 산은
일어설 줄 모르고
해맑은 밤 하늘과 입맞춤한다

한때 풍성했던 들녘
빈 땅으로 모든 욕심 버리고
어쩌다 찾아오는 단풍잎과
하룻밤을 지내는 저녁 시간



책 소개 _ 김다현 학생기자 / 조선대학교 건축학과(5년제)

세상엔 알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도 많아

스기모토 다쓰히코 외 5명 / 어크로스 / 2021. 7. 15.

이 책은 역사에서 빼놓을 수 없는 서양 대표 건축물 69곳과 그에 얽힌 이야기를 흥미진진하게 들려준다. 건축물이 지어진 배경과 관련 인물은 물론, 더 알고 싶은 독자들을 위해 건축 기법과 예술 양식의 흐름까지 재미난 일러스트와 함께 자세하고 친절하게 설명한다. 햇빛의 길이까지 설계한 고대 이집트 신전부터 루브르의 피라미드까지, 4,500년 건축의 역사가 한눈에 들어오는 흥미로운 경험을 하게 될 것이다.

우리는 해외여행을 생각하면 가장 먼저 그 도시의 대표적 건축물이 떠오른다. 우뚝 솟은 랜드마크는 다양한 역사적 사건, 인물과 영향을 주고받으며 그 숨겨진 스토리를 고스란히 간직한, 당대의 과학과 예술이 가장 수준 높은 상태로 결합한 최고의 문화유산이다. 그러므로 건축물을 알면 그 나라의 역사와 문화를 한눈에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그 내막을 모르는 사람들에게는 그저 기념사진 배경으로 그칠 뿐이다.

건축물은 누가 어떤 목적으로 만들었는지, 어느 시대에 만들어졌는지, 어떤 점이 대단한지를 이해하면 훨씬 재미있어진다. 《세상엔 알고 싶은 건축물이 너무도 많아》는 여행의 즐거움과 새로운 교양을 쌓는 쾌감을 동시에 안겨주는 흥미로운 책이다. 무엇보다 이 책의 가장 큰 특징이자 장점은 420여 컷에 달하는 일러스트이다. 세밀하면서도 빈티지한 느낌의 일러스트는 책에서 소개하는 유명 건축물들의 전체적인 외관은 물론이고 세부 부분, 평면도, 단면도, 건축 양식, 구조, 주요 특징, 관련 인물 등을 다채롭게 보여준다. 독자들은 일러스트를 통해 건축물이 만들어진 당시의 환경이나 건축물의 모습을 더욱 입체적으로 이해하게 된다.

건축이 낯설고 어렵게 느껴지는 가장 큰 이유는 용어 때문이다. 외래어와 한자어가 많은 건축용어는 쉽게 머릿속에 들어오지도 않고 이해하기도 어렵다. 이 책에서는 좀 더 깊이 있고 자세하게 알고자 하는 독자들을 위해 건축용어를 최대한 알기 쉽게 설명한다. 예를 들어 세계사 시간이나 미술 시간에 많은 이들에게 좌절감을 안겨주었던 '도리스식, 이오니아식, 코린트식'(고대 그리스의 오더 양식)은 일러스트와 함께 그 특징을 한눈에 알아볼 수 있게 설명하고, 서양의 교회 건축에서 반드시 알아야 할 '내진, 후진, 측랑, 신랑' 등의 용어는 독자가 애쓰지 않아도 저절로 외워질 정도로 그림과 함께 반복적으로 노출하고 있다. 원서에서 미흡하다고 여겨진 부분은 '옮긴이 주'를 덧붙여 독자들에게 남아 있을 궁금증을 최대한 해소하기 위해 애썼다. 이동하지 않고도 아름답고 우아하며 매력적인 서양 건축물들을 순례하는 여행을 떠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이 책은 나라 간의 경계가 점점 희미해지는 글로벌 시대에 꼭 필요한 문화적 교양을 쌓는 훌륭한 가이드가 될 것이다.

건축을 이해하고 싶어하는 사람들에게 이 책은 건축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것이 우리 삶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지를 이해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다. 또한, 건축이란 단순히 외관이나 형태에 국한되지 않고, 그 안에 담긴 이야기와 의미를 느끼는 경험이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상기시켜준다.

이 책은 건축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하며, 건축을 사랑하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건축을 잘 모르지만 관심이 있는 독자들에게도 깊은 통찰을 줄 수 있는 책이다.



한 장의 사진 _ 이동희 교수 작 / 순천대학교 건축학부



로널드 레이건 빌딩 & 국제무역센터

미국 워싱턴 DC / 2010년 5월 30일

광고 및 이메일 구독신청

건축과 도시, 사람과 자연의 경계를 넘는
소통과 공유의 장을 펼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한 적극적인 관심과 사랑을 바랍니다.

- 후면 전면광고 : 1,000,000원
- 후면 외 전면광고 : 700,000원
- 하단광고 : 350,000원
- 하단1/2광고 : 200,000원
- 구독료 : 무료
- 구독신청 방법 :
성명, 이메일 주소 작성 후
gjkira@empas.com 발송

T. 062)521-0025~6 F. 062)528-0026

